해양수산부	동정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19.(목)

연락 두절 어선 '해광호' 관련 2차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장관, 가용한 수색 자원 최대한 동원 및 구조활동 안전 강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9일(목) 17시, 충청남도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연락 두절된 '해광호(7.93톤, 연안통발, 7명 승선)'의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하여 이틀 연속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등이 참석하였으며, '해광호' 수색 등 대응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였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 어선 참여 확대 등 가용한 수색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라고 강조하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실종자 가족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구조 활동 시 대원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책반(반장 : 어업자원정책관)을 설치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사고개요**) '26.11.17.(화) 03:07경, 충청남도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해광호(7.93톤, 승선원 7명) 연락두절, 선박 수색 중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호섭 (051-773-5550)
		담당자	사무관	이강은 (051-773-55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